

북부지방 자생 이끼류의 환경적응성 검증

남춘우, 유동림, 김수정, 서종택, 김원배
고령지농업연구소 원예과

Environmental Adaptability of Native Mosses in Northern Areas

Nam, Chun-Woo, Yoo, Dong-Lim, Kim, Su-Jeong, Suh, Jong-Teak and Kim, Won-Bae

National Institute of Highland Agriculture, RDA, PyongChang 232-955, Korea

*E-mail. cwsky@rda.go.kr

연구목적

이끼는 최근 분재나 실내조경의 소재로서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원료공급을 전적으로 자연채취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생산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다. 본 시험에서 자생이끼의 원예화를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 환경적응성을 검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로서 강원도 평창, 정선, 횡성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이끼 등 7종의 이끼를 수집하였으며 유리온실에서 관리하면서 광적응성, 내건성, 내습성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적정 광도의 측면에서 100~1,000 Lux의 저광도에 잘 적응한 종류는 나무이끼였고, 100~5,000 Lux 의 광도에 잘 적응한 종류는 털깃털, 깃털, 표주박, 아기들덩굴초롱이끼 등이었으며, 100~90,000 Lux 의 넓은 광조건에 잘 적응한 종류는 우산이끼, 솔이끼 등이었다. 내건성이 강한 이끼로는 우산이끼, 털깃털이끼 등이었고, 내습성에 강한 이끼는 나무이끼, 아기들덩굴초롱이끼, 깃털이끼 등이었으며 중간정도의 내건, 내습성을 지닌 이끼는 솔이끼, 표주박이끼 등이었다. 이와 같은 자생이끼의 종류별 광적응성, 내건성, 내습성 등 광 및 수분 환경특성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인위적인 번식 및 재배뿐만 아니라 실내조경에서의 활용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